

“절음식 이렇게 요리하세요”

김연식씨 ‘한국사찰음식’ 펴내

지금까지 사찰요리전문점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 주부의 손맛을 통해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전통사찰에 구전(口傳)돼 온 우리나라 사찰음식을 생생한 칼라사진을 곁들여 한권은 담은 <한국사찰음식>이 우리출판사(대표 무구스님)에서 출간돼 화제다.

불살생(不殺生)의 불교정신을 담은 채식위주의 사찰음식은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신분이나 여성지, 요리백과에서 간략하게 소개되던 형식이 아닌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정수만을 모아 육구술 제독 정성스레 엮은 이 책은 명산고찰에 전해 내려오는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음식 이름이 갖는 자료적 가치까지 살피고 있다.

이 책은 한때 승려로서 직접 사찰의 원주수임을 담당하며 사찰음식 조리법을 계승한 김연식씨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료수집과 연구

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사찰음식은 건강식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직 그 조리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을 느껴오던 중 책으로 간행하게 됐다”고 말하는 김씨는 현재 인사동에서 사찰전문음식점 ‘산촌’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음식은 오신채(마늘, 파, 달래, 무로 응용해 파, 마늘, 짓갈 정도는 넣어 요리하는 조리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사찰음식을 종류별로



이 책은 사찰음식을 종류별로



변산반도에 자생하는 혼란으로 만드는 혼란숙회와 고사리와 비슷한 모습의 고비로 만드는 고비회 등은 처음 소개되는 사찰음식이다. 권말부록으로 ‘불교와 사찰음식’과 ‘사찰음식의 효능과 영양분석’을 실어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성인병 예방식으로 관심 고조 전래조리법 사진 곁들여 소개

부추, 홍거와 육류를 제외한 산나물과 해조류, 나무열매, 나무껍질, 나무뿌리, 곡류가 주재료다.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요즘, 이 책은 전통사찰음식의 모이는 그대로 살리면서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식

류어 제1부 밥, 제2부 국 등, 제3부 나물, 제4부 무침, 제5부 전, 제6부 김치, 제9부 잡채, 제10부 장아찌, 제11부 떡과 수제미 국수 죽 목 화채 수정과 식혜 강정 등을 다룬 기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중 제주도와 전북

강원도 오대산 일대와 강릉의 도굴산문, 춘천 청평사 등 강원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강원불교의 사상적 특성과 역사적인 의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강원불교사연구(소화)>가 출간됐다.

또한 오대산 사적은 신라 중기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되다 신라하대의 혼란한 세태에 이상적 세계를 바라는 종교계사로 이어졌으며 신라중기이후 신라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화엄사상과 사리신앙의 영향으로 오대산을 성지로 인식하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강원불교 역사·특성 ‘한눈에’

‘강원불교사 연구’ 나와...논문 5편 수록

리의 탐구보다는 하나의 신앙과 그것을 신봉한 인간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사회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고찰했다.

“신라 오대산 사적의 형성”(김복순)은 설화로 중첩된 오대산 사적을 하나씩 가닥을 잡아 자장율사의 문수신앙 진영원 밀교 등을 자세히 수록했으며 중국의 오대산과 연계, 신라 성덕왕대에 문수신앙이 이식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순 유형별로 검토하고 사상배와 관련된 민담과 비교, 춘천지역의 대표적인 설화인 사상배전설을 통해 춘천지역 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도의(道義)의 남종선 도입과 그 사상’, ‘고려전기 법안종과 지중’, ‘고려전기기의 법상종과 해린’ 등을 통해 한국불교 사상배에 있어서 강원불교의 중요성을 간파해 내고 있다.

출판가 소식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특징을 밝힌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이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됐다.

이 책은 경기도의 불교미술, 음악, 춤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을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문화유적과 예술의 특징을 정리했다.

지역포교지 ‘군산불교’

군산지역 불교포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군산불교> 제3호가 나왔다.

군산불교대회가 발간하고 있는 이 책에는 송월스님(송흥수 주지)의 ‘불교의 윤리관’과 청운스님(청운사)의 ‘불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 생황불교를 위한 기본교리가 문답형식으로 책 뒷면에 정리돼 있다.



새로 나온 책

▲양산=중국의 작은 부처로 불리워 만큼 출중하였고, 후에 스승 위산선사와 더불어 중국 오가종의 하나인 위양종을 창시한 양산혜적선사에 대한 오소라즈니쉬의 강의를 모았다. 불교에 입문한 이들에게 선(禪)에 대해 이야기 기한다. <성하 6천5백원>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명의 지혜=심각한 경제침체의 해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책. 성공시대 유일불교교수(경명학)가 집필한 이 책은 경전을 인용해 불교적인 경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밝힌다. 서양적인 경영패러다임의 한계상황에서 ‘중도 경영학’ 실천과 팔정도론을 경영학적으로 재해석해 경영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언론자료간행회 9천8백원>

▲동지마을 이야기=대부도 동지정소년의 집에서 30명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법 현스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동지정소년의 집에서 인연과 생활을 통해 진정한 불행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원>

▲천상의 목시록=석가모니 예수 모하멧 등의 성인들이 천상에서 겪는 일들을 위대한 장군들의 지혜와 전략을 통해 흥미롭게 전개했다. 불교가 천상세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끄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 책은 이를 통해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한다. <세명문화사 전2권 각권2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방송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해 원	가람기획
3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원	동 지
4	불교인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은 날
7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야문
8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출판사	산 하
9	도술전에서 민남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용	용 화

구입문의: (02)737-0695

‘불교대전’ 개정판 나왔다

만해 한용운스님이 편찬하고 이원섭시인이 역주한 <불교대전>이 가로쓰기로 편집을 바꾼 사륙 양장본 개정판으로 선보였다. 현암사 펴.

만해스님이 1910년부터 3년간 통도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며 집필, 1914년 범어사에서 국한문으로 간행했던 <불교대전>은 1980년 1월 현암사에서 이원섭 역주로 출간됐다.

9년 절판...독자 요청 가로쓰기 읽기 쉽게

이 책은 1991년 6쇄 발행을 마지막으로 절판됐다가 스님, 불교학자, 불자 등 꾸준히 찾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해

이번에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재편집했다.

이 책은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수도 방법의 문제를 체계있게 분류해 위로는 깨달음부터 아래로는 국가 사회 가정의 문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경 울 문에서 초록, 인용 경전만도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을 합해 44부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이다. 대장경을 주제별로 재구성해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한 이 책은 불교경전의 정수로 평가되고 있다.

화제의 책

성철스님 인간적 면모 진솔하게 담아

침묵의 깊은 뜻을... 원정 지음

생식과 장좌불와(長坐不臥) 용맹정진으로 유명한 대선사 성철스님의 인간적인 진면(眞面)을 한치의 굴절없이 진솔하게 펼쳐놓았다. ‘상좌에게 온 사람의 편지’ ‘난 목포의 눈물이 풀더라’ ‘장미꽃을 좋아하는 스님’ 등의 일화에서 스님의 인간미를 흠뻑 느낄 수 있다. 또 청담스님과 평공면서 레슬링을 즐기고, 차 한잔을 단숨에 마셔 버려 동경한 일본스님들을

무색하게 한 일화는 계율을 뛰어넘는 무애의 경지를 엿보게 한다. 지난 60년 해인사 백련암에 입산해 10여년간 성철스님을 곁에서 직접 모셨던 상좌 원정스님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당시의 추억어린 여러 일화를 직접 엮었다. 원정스님은 83년 환속해 독일에 서 조형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도예가 차대완으로 활동하고 있다. <맑은소리 6천5백원>

화제의 책

기자의 눈으로 본 1600년 한국불교

한국의 성지-불교편 이선민 지음

16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민족과 함께한 불교. 한국불교는 이같은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유려한 명산고찰과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살 다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은 삼천리 강산 곳곳에 수행과 신심의 자취를 남겼고, 우리 국토 곳곳이 영험한 부처님의 도량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가 전국을 직접 취재하며 가려

뽑은 ‘한국의 성지-불교편’(부제:예솔리 끊이지 않으니)은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통도사 금강경단, 해인사 경관전, 태고종선암사, 천태종구인사 등 우리나라 10대 사찰의 창건유래와 고승들의 발자취를 사진과 함께 살피고 있다. 또한 흥분부에서는 한국불교의 흐름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있다. <샘터 4천원>

화제의 책

종교학자들이 본 환경문제 극복대안

환경과 종교 김희성 외 지음

김희성, 이정배, 박신환, 김용정, 송향홍, 최준식, 김지하 등 종교학자들이 환경문제 극복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서. 소비자본주의 구조에 빠져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해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생명체를 공평하게 존중하는 종교적 자연관을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 이분법적

사고, 자연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기독교 전통, 물질적 풍요를 숭배하는 소비자본주의 등이 환경 위기와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생태윤리학적 공동체 차원에서 불교의 중도, 연기, 무아, 자비사상 수용을 생태계 위기시대인 오늘의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음사 9천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p>조계종 정각사</p> <p>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p> <p>▶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전화 : 02/742-1231 전송 : 02/744-3784</p>	<p>대성사</p> <p>주 지 정성 (전국비구니회 호법부장) 신도일동</p> <p>▶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939-2 전화 : 914-6532</p>	<p>화승사</p> <p>주 지 김용담</p> <p>▶ 관악구 봉천1동 173-51 전화 : 883-7030</p>	<p>대성암</p> <p>주 지 범용 신도일동</p> <p>▶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3리 262 침악역뒤 전화 : 0371/763-8837</p>	<p>대한불교조계종 성보사</p> <p>주 지 신천 신도일동</p> <p>▶ 경기도 남양주시 회도읍 창현2리 산78-35 전화 : 0346/594-2683, 1397</p>
<p>무애원 포교당</p> <p>원 장 설봉 신도일동</p> <p>▶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전화 : 846-2156</p>	<p>한국불교대교종 법성사</p> <p>주 지 이석천</p> <p>○ 흥익인간 학회 이사장 ○ 인류 평화운동본부 부총재</p> <p>▶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 23-4 전화 : 651-4382</p>	<p>인과선원</p> <p>주 지 정덕 신도일동</p> <p>▶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p>	<p>덕화사</p> <p>주 지 김일단 대중일동</p> <p>▶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90-3</p>	<p>대한불교조계종 만의사</p> <p>회 주 정락 주 지 성직</p> <p>▶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전화 : 0339/376-6005</p>
<p>(사) 대한불교법회</p> <p>성보사 포교원</p> <p>원 장 구윤희 신도일동</p> <p>▶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전화 : 02/381-1234, 2727</p>	<p>지정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p> <p>원적정사</p> <p>주 지 윤광 대중일동</p> <p>▶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71의1 전화 : 0342/704-8272, 705-3662 전송 : 0342/701-0138</p>	<p>대한불교관음종</p> <p>불암사</p> <p>주 지 양종명 사부대중일동</p> <p>▶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5번지 전화 : 0351/42-7684, 45-7684</p>	<p>불광사</p> <p>주 지 조광현 신도일동</p> <p>▶ 서울 은평구 불광동 25-1 전화 : 359-5367</p>	<p>대한불교총화종 원로원장주석</p> <p>승룡사</p> <p>조 실 전야용 대중일동 신도일동</p> <p>▶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61 전화 : 814-7536</p>